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בעער רב אנו מודיעים
על פטירתו של חברנו

יוסי נווה

החלוויה תקיים מחר
יום שני ה- 18/5 כ"ד אייר
בשעה 17:00

תנזמנו למשפחה
בית עין-גב



‘생활속 거리두기와 일상으로의 복귀’

작년 이맘때쯤 노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티키 나베’ (תיקי נווה) 아줌마의 남편(요씨)이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요씨’ 아저씨를 위해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티키’ 아줌마를 통해 ‘요씨’ 아저씨의 근황을 들으며 말씀으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으로 나누었으며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작스럽게 ‘요씨’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부고(訃告)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라 다음날 장례식이 치뤄졌고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 거리를 두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와 ‘티키’ 아줌마를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역시 주의 말씀 외에 더 한 위로가 없겠다 싶어 시편의 말씀으로 위로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미망인의 마음이, 그 슬픔이 짐작되지 않지만 동정의 마음을 가지며 계속 격려와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슈아’(구원자)의 위로가 ‘티키’ 아줌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예슈아’의 찾아 오심이 딸(티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부터 노인센터도 다시 열게 되었지만 여전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 특히나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보니 여러가지로 우려하는 바가 큼니다. 노인센터의 어르신들과 스텝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봉사를 나가게 되어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양인 ‘포비아’가 여전히 있는만큼 어르신들이 제가 다가가는 것을 경계 하시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초기 한국의 확산세가 알려지면서 곧바로 봉사 활동이 중단되었기에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제가 담대함과 의연함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두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경이 통제되고 유대지역에서의 일거리도 막히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다행히도 잘 지내고 있는듯 하여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넉넉치 않은 생활과 제한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광야같은 삶이지만 새벽이슬(曉露) 같은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또 공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 합니다. 오고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씨 & 티키

요씨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얼마전 모습



베두원 (염소 젖 짜기)

그동안은 코로나 19 때문에 마을을 방문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병(농가진)

지난 몇주간 담희, 단아 특히 도하가 농가진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속 거리두리

노인센터를 다시 열었지만 염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살롬! 지난 한달도 주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곳 이스라엘은 지난 5월 중순에 약 열흘간 정말 더웠습니다.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기는 날이 연일 계속되고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아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날씨를 보내며 이제 5월인데 앞으로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염려했지만 우려와 다르게 5월 말부터는 기온이 좀 내려가 좋은 날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도 좀처럼 ‘코로나 19’의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감염자들이 줄면서 이스라엘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일상으로의 복귀가 곧바로 재확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바깥활동을 몇달 동안 거의 못하다가 요즘은 동네 주변도 산책하며 답답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모기가 생기더니 급기야 ‘도하’가 먼저 감염되고 도하를 시작으로 농가진인 담희, 단아에게도 옮기게 되면서 한동안 가려움으로 잠 못드는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그 속에서 나름 적응해 보려하지만 예전의 삶이 그리고 또 소중했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방인으로 타국에서 살아야하는 불편함이 어찌면 당연하겠지만 일상의 크고작은 변화들 속에서 작은 것조차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무기력함과 답답함이 더한 요즘입니다. 한국에 계시든 혹은 타국에 계시든 요즘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들은 부단 저만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더욱 자신을 추스려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며 주님 주시는 새힘 공급 받고 오늘을 살아가야할 때입니다. 비록 무기력함과 답답한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 기도제목 」



1. 코로나 19로 인해 막혀있는 사역의 장(노인센터, 베두원마을)이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진행 가운데 재발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2.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에서 지혜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3. 남편 '요씨'의 죽음으로 인한 '티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복음에 의한 참 소망을 깨닫게 하소서
4. 아이들의 농가진(피부병) 치료와 다비드의 눈통증과 두통을 치료해 주시도록

Motto :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은)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코리엘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카카오톡 ID: magendavid77
- QR코드:

